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직거래

전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넓혀... 단순한 식재료 제공 넘어 건강한 먹거리 문화 만들기

텃밭에서 잦 수확한 채소를 손질해 바로 식탁에 올리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선한 먹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 것이다. 자연 속에서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곧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식재료 제공을 넘어 건강한 먹거리 문화의 시작이 된다.



을 구축한 이후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방식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전북농협은 54개소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관리', '친환경 소비문화 도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욱 만족하는 직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품질 관리'를 위해 전북농협은 2018

년부터 '출하전(사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시군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이며, 매년 약 1,200여건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지역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생산자가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친환경 소비문화 도입'으로 현재 일부 직매장에서 포장 없이 개별농산물을 필요한 만큼 담아가는 '벌크스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층 더 나아가 올해 10개 직매장을 대상으로 '제로웨이스트 로컬푸드 직매장' 시범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에도 힘 쓸 예정이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대신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리퍼브(Refurb)상품 코너를 신설하여 외형이 살짝 손상되

었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농산물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김장철 직거래 장터와 농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내손으로 만드는 건강한 식탁과 같은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여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도약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직거래 환경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01만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승중)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응원하는 GBCH 챌린지 에 참여,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챌린지 참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승중)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응원하는 'GBCH 챌린지'에 참여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참여자가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진구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임승중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2036년 하계 올림픽이 전북에서 개최된다면 지역

경제는 물론 스포츠 문화, 관광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며, "중소기업계도 적극 동참해 성공적인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다음 주자로 (사)벤처기업협회 전북회 백은진 사무국장을 추천하며 전북의 올림픽 유치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들과 함께 새민금 국제공항 건설, 교통 및 관광 인프라 확충 등 기반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옥기 기자



전기안전공사-화학융합시험원 산업안전 확보 업무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원(KTR)이 우리나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KTR 본원에서, 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과 KTR 김현철 원장 등 12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ESS & 신에너지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이 △ESS와 신에너지 산업의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하고, 필요시에는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ESS와 신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선도 등에 상호 협력한다. △각종 교육과 행사의 참여로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극한 환경 BESS(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연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 공모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01만호 기자

농진청, 농기계 업체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의견수렴

고령화·일손 부족 문제 해결

농촌진흥청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농기계 업체와 의견수렴에 나섰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1일 완주군에 있는 IS엘트론 전주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청과 IS엘트론 간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권 청장은 "IS엘트론이 본격 양산하고 있는 자율주행 트랙터는 우리나라 농업 첨단화를 이끄는 대표적 사례"라며 "우리나라 발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농기계 산업체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스마트농업 발전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67% 수준인 발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작물

에 필요한 발농업기계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기술 보유 민간 전문기업과 스마트 농기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도 확대하고 있다.

권재한 청장은 오는 21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기계 산업계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농기계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과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NH농협 전북본부, WM로드쇼 개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11일 전북 관내 영업점 WM

(Wealth Manager, 자산관리 전문가)을 대상으로 '2025년 WM로드쇼'를 성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11일 전북 관내 영업점 WM (Wealth Manager, 자산관리 전문가)을 대상으로 '2025년 WM로드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적으로 개최했다.

'WM로드쇼'는 자산관리, 방카 펀드, 신탁, 퇴직연금 등 WM사업을 총 망라하는 자산관리 세미나로 시장 현황부터 마케팅 기법까지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북 관내 WM 담당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김성훈 본부장은 '고객 중심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곧 금융기관의 경쟁력임을 명심하여 불완전판매 예방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천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현재 WM특화 점포인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 3개소를 운영 중이며 금융, 부동산, 세무를 아우르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1만호 기자

송호석 환경청장, 김제 축사매입지 현장 점검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11일 김제 용지의 축사매입지 현장을 방문하여, 생태 복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축사 매입지 현장은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용암리 일원이며 2022~25년에 매입하고, 국비 481억원을 들여 2023~25년에 복원을 추진한다.

규모는 축사 53개, 16만9,000㎡(약 5.1만평/ 폐지 16만8,000㎡, 한우 6,000㎡)이다.

매입 용지는 2024년까지 12만6,329㎡를 매입·계약 완료했고 이는 목표대비 79%이고 가축은 3만440두가 감축된다.

그간 매입한 26개 축사 중 올해는 68억원을 투입하여 19개소(3만6,669㎡)

에 대한 축사 철거 등 생태복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축사 등 지장물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를 한 후 축사 매입지 수림대 조성 등 생태복원을 추진하게 된다.

송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향후 석면 해체 등 축사 철거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